

朝鮮, THE MORNING CALM

50호

1894년 8월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50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4년 8월
- 페이지 수 : 24 (표지 포함)

□ 목차

Cover (표지)	(i)
The Mission (조선선교회 선교사 명단과 영국 본부 주소와 담당자)	ii
Hospital Naval Fund (해군병원기금 운영진, 송금 안내)	ii, iii
(Offerings 봉헌 내역) St. Peter's Community Association for Foreign Missions, Hospital Naval Fund, Education Fund, Children's Fund	iv
The Bishop's Letter (주교통신, 1894년 4월 서울에서 보낸 서신)	(113)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조선선교 지원협회)	115
Hospital Naval Fund (해군병원기금)	116
The Day of Small Things - St. Peter's (Kilburn) Foreign Mission Association (소소한 이야기 - 런던 킬번의 성베드로회 해외선교회)	119
The Spirit of Missions	123
(사진) Church of the Advent, In course of Building (장림성당, 공사 모습)	125
Education Fund	v
August (8월의 기도표)	v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조선선교 지원협회 지부와 담당자 안내)	vi, vii
Notices (조선선교 지원협회의 알림란)	viii

□ 해제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칼〉 50호, 1894년 8월호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는 1894년 초봄의 조선선교회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영국의 교우들이 잘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선선교회의 전례 생활과 대인 사목, 의료 선교, 성문서 출판 일 등을 두루두루 다 알리고 있다. 선교사가 많지 않은 중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조선 여행 소식도 전한다.

The Bishop's Letter - 주교통신

1894년 4월 서울에서

그리운 벗들께,

부활 대축일을 데이비스 사제, 랜디스 선생과 제물포에서 지낸 후, 저는 낙동과 정동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절기를 즐기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저명한 여행가 비숍 여사(Mrs. Isabella Bird Bishop, 1831-1904)가 지난달에 도착해 쿡 선생(Miss Cooke) 집에 머물면서 여행 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비숍 여사는 쾅쾅 문을 닫아걸고 사는 이 나라의 길을 탐사하는 첫 여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공개적인 적대감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런 원정대라는 것이 워낙 새로운 현상이라 통역자 겸 동료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곳 사람들 마음에는 여성이 제 나라 밖으로 나간다는 것부터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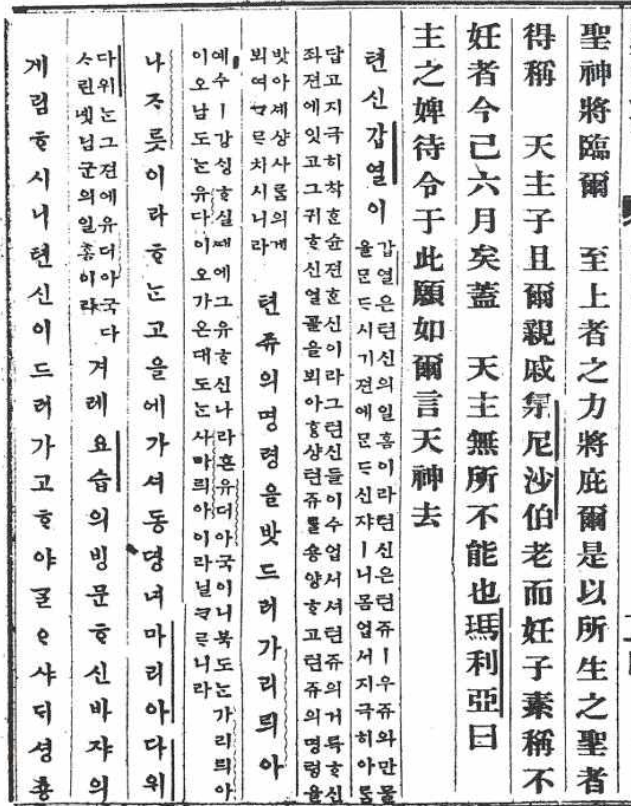
제가 제푸에서 안드레아를 데리고 왔는데, 선교회 모두가 얼마나 진심으로 환영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숍 여사에게 소개했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의 영어와 조선어는 통역을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이 판명되었고, 마침내 미국 장로회 선교사 중 한 명이 동행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4명이 일행을 이루었고 이번 달 중순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한강을 따라 가능한 한 멀리 북으로 올라가 보고 그다음에는 상황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행 전날 아침에는 비숍 여사와 안드레아도 장림성당의 주간 예배에 참석하여 나란히 영성체를 봉했습니다.

이번 달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우리 총영사(대행)의 딸 가드너 양(Miss Gardner) 양과 해군 중위 레어드 군(Lieutenant Laird, R.N.)의 결혼식이었습니다. (...) 1891년에 조선에 오자마자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특권을 누렸는데, 이번에는 이 나라에서 결혼하는 첫 번째 영국인 부부의 혼배 성사를 집전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선교 사업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낙동의 성 마태오 병원에 붙은 한옥 한 채를 샀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발독 선생(Dr. Baldock)이 늘어나는 환자에 맞추어 병실도 늘려야 한다고 저를 다그친 지 꽤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해군병원기금 상황은 새로운 비용 지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와일스 선생이 지어놓은 병동(병상 6개)이 수녀회 감독 아래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 노라 수녀(Sister Nora)가 옆집 한옥을 사서 그것을 우리 선교회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때, 저는 매우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훌륭한 수녀님들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려는 이러한 준비로부터 추론할 수 있으시겠지만 수녀회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제게 내민 돈도 사실은 본국의 친구들이 그분들의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노라 수녀는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와 필요 사이의 균형을 잡는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답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본국의 성베드로회 친구들은 수녀들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사목하는 의료 선교 사업에도 이바지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저는 여러분이 하느님께 우리 수녀들의 복을 빌어주시고, 이 수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좀 길게 썼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기도 하는데, 선교사가 주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선 글자 활자체 두 번째 것이 도착했다는 점인데, 이는 《쇼만민광》 인쇄에 남아 있던 장애물을 다 치운 것입니다. 큰 활자로는 주석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주석을 넣을 때 쓸 활자도 장만한 셈입니다. 이제 인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주옥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인쇄 제본을 마치고 잘 출판된 《쇼만민광》 본문. 두 가지 문자로 된 성경으로, 한문과 국문이 교대로 보이게 편집되었다. 중간에 두 줄로 들어간 주석을 '할주割註'라고 한다.)

트롤로프 사제는 마포 강변 선교 본부에서 조용히 일에 몰두하느라 바쁩니다. 원할 때마다 이따금 서울로 옵니다. 미국 장로회와 감리회 성서 번역 위원회에서 그를 자주 찾는데, 중요한 회의에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데이비스 사제는 전라도에서 돌아온 후 다시 2주간의 일정으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있는데, 곧 트롤로프 사제가 영국으로 가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가까이 붙어서 긴밀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워너 사제는 제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수난 절기와 부활절에 장림성당 성찬례를 책임지도록 맡겼습니다. 이후 그는 강화도로 돌아갔지만, 주일에는 제물포에 가 그곳을 돌보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뉴창에 보낼 사람이 없어서, 독세이 사제가 계속 그곳에 있기를 요청할 수밖에

에 없기에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해서 뉴창으로 가져다 줄 겸, 저는 26일에 제물포를 떠나 뉴창으로 갔습니다. 다음에는 뉴창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소원을 빌고 정직한 기도를 바치며,
저는 여러분의 다정한 벗입니다.

✽ C. J. 코프.

그래픽 자료 - 사진 1장

사진 1. Church of the Advent, In course of Building - 장림성당, 공사 모습

* Spirit of Missions 중간에 들어 있다.



아침생각

선교사가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줄 뿐 아니라 받기도 하는 사람임이 진리라고 한다. 이 진리를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며, 기도 부탁하고 있다. 코프 주교는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 주교이다. (✽)